

社說

정부 움직이는 힘 필요

2년 전부터 350만평 규모의 신도시개발의 꿈을 키워 온 포천시가 결국은 70만평 규모로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실망이 크다.

신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천시를 발전시켜 나갈 견인차 역할을 할 인재가 부족한 현실을 개탄할 수 밖에 없다.

과거 국무총리까지 한 거물급 정치인 이후 후속 정치인의 부재로 포천시는 도시개발 방향도 삶의 질 향상도 꿈에 불과하게 되었다.

뜻 있는 지역의 인사들은 포천시의 이같은 우수부담함에 실망하고 포천을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다. 지역에서 큰 기업을 운영하며 포천시 발전을 위해 남다른 봉사활동을 펼쳐온 지역인사의 이같은 발언에 포천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인들은 주목해야 한다.

전임 시장의 350만평 신도시 개발에 대한 꿈과 의지와 열정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명품신도시로 지정을 받고자 했지만 이 또한 역부족이었고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규정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2007년1월30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던 안도 수포로 돌아갔다.

왜 이같은 결과가 나왔을까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포천시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포천시의 지도자로 선출했다. 그리고 일을 맡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을 추진하는데는 미흡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 법에 의해 70만평 규모로 축소 추진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과연 어떤 방법이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고 포천시가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인지를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18대 총선과 포천시장 보궐선거 후에 나온 선출직 협의체를 구성해 힘을 모아야 한다. 특출난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없다면 다소 부족하지만 서로 힘을 모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협의체 구성의 중심은 포천 시장이 서야 한다. 포천시장에 중심에서 서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의 초당적 연합체를 구성해 포천시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포천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포천시의 시급한 현안사항을 풀어 나가야 한다.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민자고속도로 착공은 물론 축석고개에서 하승우리간 6차선 확장공사를 비롯한 각종 도로공사가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포천新都市 70만평 규모 축소 추진

350만평 규모 시도 수포로 돌아가

2년전부터 신도시개발 꿈에 부푼 포천시가 최근 그 시행면적을 축소해 70만평에 2만6천명 수용규모의 신도시개발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포천시의회 이강림 의원이 포천시장에게 신도시 개발관련 8월18일 서면질문에 대해 8월25일 답변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답변자료에 따르면 포천시 신도시개발계획을 담은 2020포천도시 기본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8차례(본회의 2회, 본과위원회 6회)에 걸쳐 심의한 결과 2020년도 포천시인구 26만명, 신도시개발면적 4.96㎢(150만평)로 승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가 약 6배를 초과하는 29.4㎢(889만평)를 고시하여 17개월 동안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 이유에 대해 2020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한 11.57㎢(35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포천시는 2006년11월14일 포천신도시를 경기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16.53㎢(500만평)~33.06㎢(1천만평) 규모의 명품신도시 건설 대상지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규정에 따라 11.57㎢(35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2007년1월 30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당초 계획했던 규모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2007년1월24일과 3월28일자로 군내면과 가산면(마전리),신북면(가재리)일원 29.40㎢(889만평)를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주민의 불만과 각종민원 발생에 따라 2008년7월28일 개발행위제한구역제한을 군내면 일원 약 5.87㎢(177만평)으로 축소 고시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명품신도시 건설사업 대상에서 포천신도시를 반영하기 어렵게 되었고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규정에 의해 추진하려던 35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추진 2008년1월15일 확정된 1단계 발전종합계획에서 제외됨에 따라 어렵게 되었다.

이와같이 포천시의 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2020 포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포천신도시 시가화예정용지 150만평 규모 내에서 인구 배분계획을 기초로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2008년7월28일 개발행위제한구역 면적을 포천신도시 시가화예정용지를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인 5.87㎢(177만평)로 변경축소 고시했다.

그리고 2020포천도시기본계획(군내·신북·포천·선단)의 2단계(2006년~2010년 증가 인구수가 부족해 소흘권(소흘·나촌·가산), 일동권(일동·이동·화현), 영북권(영북·참수·영중·관인)등 3개

권역의 2단계 증가 인구중 일부를 흡수한 2만6천명을 포천신도시 인구로 계상했으나 신도시 계획인구 6만명의 약1/2에 불과해 포천신도시 시가화예정용지 전체(4.96㎢)에 대한 지구지정 제안을 제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포천시는 신도시 시가화 예정용지 4.96㎢(15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기초로 하여 2020포천도시기본계획의 인구 배분계획에 따라 지구지정 제안이 가능한 2.27㎢(70만평) 규모의 지구지정 제안서 및 개발계획 용역을 보완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지구지정에서 제외되는 2.69㎢(80만평)에 대하여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계속 관리하면서 포천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포천·선단동의 주택 부족에 따른 개발안력과 비교분석하여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도시 개발지구에 대한 보상시기 및 이주시기 등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08.10 지구지정 제안서 및 개발계획 제출(포천시→국토해양부)
- ▶2009.6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국토해양부)
- ▶2009.7~2009.12 실시계획 수립 및 제출
- ▶2009.7~2010.11 지장물 조사 감정 평가 및 보상사 사전
- ▶2010.06 실시계획 승인(포천시→경기도)
- ▶2010.12~2011.12 편입용지 보상
- ▶2011.01~2011.12 편입지역 주민 등 이주
- ▶2011.03~2015.12 사업추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특별기고

우리였다면?



이중헌 포천면민회 회장

영국의 처칠 수상이 국회에 나가 중대한 연설을 하게 되어 있던 어느 날 이었다. 시간이 좀 늦을 것 같아서 서두르며 운전기사에게 속력을 내서 국회로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속도를 서서히 높여 나가자 어느새 경찰차가 따라오며 정치명령을 내린다. 그냥 달리지 경찰 차가 앞을 가로막고 속도위반이라고 하면서 기사에게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운전기사가 당연한 듯이 말한다.

"이 차에는 처칠 수상각하가 타고 계십니다. 국회에 도착할 시간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과속을 했으니 양해해 주시요, 빨리 가야 합니다."

그러자 교통순경은 뒷좌석을 잠깐 들여다보고 말한다.

"수상 각하를 약간 닮은 것 같지만 정말 우리의 처칠 수상이라면 실마 교통위반을 하실 리는 만무할 것인듯, 당신은 속도위반에다가 거짓말까지 했으니 면허증을 내놓고 내일 경찰서로 출두하십시오" 하면서 눈을 부라린다.

운전기사는 면허증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뒷좌석에서 이 상황을 유심히 목격한 처칠 수상은 그 경찰이 법을 엄격히 잘 지키는 태도에 크게 만족하며 기뻐했다.

국회연설을 마친 그날 오후 경시총감을 수상 관저로 불러서 명령한다.

"그 경찰을 1계급 특진 시켜 주시오"

그랬더니 그 경시총감은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말한다.

"각하 이 나라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라며 딱 잘라 거절한다.

그러자 처칠 수상이 하는 말이 "오늘은 내가 우리 경찰에게 두 번이나 당했다"면서 법을 잘 지키는 영국 경찰에 대해 크게 만족해 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 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다.

국가안보 책임지는 강한 陸軍象 선보여

육군 수기사 번개부대 무사고 1주년 기념행사

육군 수기사 번개부대는 8월14일 무사고 1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기관장, 주민, 장병 가족들을 초청해 민·관·군 화합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사고예방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태권도, 권투, 기마전, 아이언 맨 등 다양한 종류의 경기를 통해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육군의 강한 모습을 유감 없이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태권도와 권투는 포천시 공인 심판을 초청하여 관중의 공정을 높인 가운데 왕중왕전을 통해 각 종목의 최강자를 가렸으며, 경기에 참가한 장병들의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심판들도 감탄했다. 그리고 태권도와 권투 시합 사이에는 포천시 검도관 소속 유단자들과 검도 대련 시범을 여단장이 보여주어 무사정신을 북돋우는 불거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투기 종목의 백미는 여단장 조상호 대령(육사 41기)이 권투결승

에서 KO승을 거둔 이재호 이병(21)과 권투시합을 자청하여 실전적인 경기를 벌인 것으로, 경기를 지켜본 지역 기관장 및 장병들의 입에서는 탄성과 박수가 절로 나왔다.

여단장과 시합을 마친 이재호 이병(21)은 "여단장님과 직접 경기를 해보니 도저히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존경스럽다"며, "여단장님과 같은 강한 투지를 갖춘 군인이 되고 싶다"라고 앞으로의 군 생활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 경기로 진행된 행사의 하이라이트 번개 아이언 맨 선발대회에서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K-2 분해결합, 완전군장 2Km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체력과 더불어 강인한 투지 또한 볼 수 있었던 자리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진정한 강한 전사로서의 육군 이미지제고는 물론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도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선진교통문화 정착 위한 홍보활동

포천경찰서 교통질서 추진위원회 創立

포천경찰서(서장 양종렬)는 8월 14일 교통사랑사고 줄이기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민·경 우호분위 조성 등을 위해 교통질서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교통질서추진위원회는 지역에서 신앙이 두터워 교통봉사 참여에 적극적이고 평소 교통사고 예방에 관심이 있는 관내 거주 주민 23명으로 구성됐다.

교통질서추진위원회는 교통질서 홍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 향상을 도모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법질서 확립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구성된 교통질서 추진위원회 임원 및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김덕환 ▶부위원장 안애경 ▶감사 최두열 ▶사무국장 김영복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경찰서는 8월14일 교통사랑사고 줄이기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민·경 우호분위 조성 등을 위해 교통질서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훈: 주인정신(主人精神)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행인 최호열
편집국 (031)542-1506	편집국장 김영복
광고접수 (031)542-9888	인쇄인 이정자
구독신청 (031)542-9889	
FA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8월 20일 ~ 8월 2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구독료 입금계좌 : 농협(585-17-004213)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취재기자 모집 | 소신있고 성실한 취재기자를 모집합니다. ☎031-542-1507

최근발행현황

- 2008. 8. 20 포천신문 제422호 발행
- 2008. 8. 30 포천신문 제423호 발행
- 2008. 9. 10 포천신문 제424호 발행예정